



SEOUL
NATIONAL
UNIVERSITY

Embrace the world Pioneer the future

NURSING NEWSLETTE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ctober 2016. 가을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식지 / 발행인 김성재 / 편집인 박연환 / 편집조교 황민화

2016년 10월 6일 목요일(제 12호)

2016학년도 'Young Nightingale Camp'

2016년 7월 19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간호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Young Nightingale Camp'를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고등학생들 중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갖춘 30명의 참가자들이 최종 선발되어 간호학에 대해 탐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성재 학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채선미 학과장의 간호학 소개 강의인 'Welcome to Nursing'이 진행되었다. 이후 작년부터 신설된 '간호비전탐구' 조별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그간 간호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가짐 등을 돌아보고 예비 간호학도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다. 각 조에 편성된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체험활동인 '간호시뮬레이션'을 통해 활력징후 측정과 근육주사 실습을 직접

해보고 시뮬레이터를 통해 정상분만 과정을 체험하였다. 조별로 나누어 간호학박물관, 사인센터, 옥상정원을 비롯한 간호대학 내 주요시설을 둘러보았으며, 박연환 부학장의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설명회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조별활동 발표회와 수료증 수여식을 끝으로 2016학년도 'Young Nightingale Camp'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조별활동 발표회에서는 오전에 진행되었던 '간호비전탐구' 활동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조별활동을 통해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욱 깊어진 참가자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대학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Young Nightingale Camp'가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행사로서 지속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송미순 교수 :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2017년 2월 우리대학 송미순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특집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32년의 시간동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계시면서 느낀 시간의 소회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였다. 인터뷰에는 간호대학 3학년 학부생인 고우리, 신현경, 안체라 학생이 수고해주었다.

송미순 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학력

- 1970~1974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78~1981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간호학석사
- 1985~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주요경력

- 1974~1975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 1975~1979 미국 위스콘신대학병원 간호사, 책임간호사
- 1981~198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조교
- 1985~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교수
- 2009~201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 1999~2001 노인간호학회 회장
- 2008~2009 한국노년학회 회장
- 2012~2014 국제시그마간호학회 한국지부 회장

○ 기타

- 2009 노인복지공헌 보건복지부 장관상
- 2015 미국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 (FAAN) 선정

1. 32년이라는 시간동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특별히 성인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시절의 실습과 처음에 근무했던 곳이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에서 1년 동안 일을 한 후 미국으로 바로 갔고, 미국 RN 시험을 보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노인을 접하게 되었어요. 미국 RN이 되고서는 4년 동안 안과병동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안과병동이라는 곳이 미국도 대부분 노인이었고 많은 노인 환자를 접하면서 한국도 노인에게 특화된 간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일하면서 석사공부를 시작했어요. 미국대학에서는 성인간호와 노인간호가 분리되어 있어 노인간호를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는 분리되어있지 않아 성인간호라는 범주 안에서 노인간호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1990년대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노인간호가 따로 분리되었고, 연구도 노인 쪽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죠. 3학년들도 실습을 나가봐서 알겠지만 내과 병동쪽은 노인분들이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간호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작년에는 FAAN(미국 간호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거주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자기관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와 지역사회 봉사 등을 중요 업적으로 인정받으셨는데, 특별히 노인 간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교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연구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FAAN(미국 간호학술원 회원)은 꼭 연구만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지원 후 여러 업적을 심사 받은 후 영입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총 6명이 있는데 우리학교에는 나를 포함해서 박현애 교수님, 최명애 교수님까지 해서 총 3명이예요. 1년에 100명가량 뽑는데 대부분이 미국사람이고 외국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퇴임 전에 지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만약 된다면 우리학교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뻐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주제는 만성질환자 자기관리에 대한 것으로, 만성질환자 self management입니다. 만성질환은 자기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합병증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1990년대부터 지역 사회에 가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하기 시작했어요. 강북구 보건소와 협약을 맺어 당초가 있는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직접 보건소로 가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의 길이가 6주동안 총 6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강의식 프로그램을 개발로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찾아보며 공



부하고 직접 연구도 하면서 차차 발전시켜나갔어요. 행위변화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강의하듯이 가르치면 실천을 잘 안 해요. 대상자의 행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위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IMB model(information, motivation, behavior skill)모델에 초점을 맞춰서 2010년부터 6년 간의 연구 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행위변화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행위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3개월 이상의 습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6주에서 12주로 바꾸어서 3개월짜리로 복지관에서 당뇨환자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최근 추가되어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치매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관절염 자기관리 프로그램, 고혈압 자기관리 프로그램, 일반건강증진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예방적 차원)이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원학생들은 학위논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시킨 것에 대해 미국학술원에서도 좋게 본 것 같아요.

3. 간호사로 임상에서 근무할 때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 응급실에서 일하는 동안 연탄가스인 환자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치료는 고압 산소 치료 통에 환자를 집어넣고 산소로 환자를 치료해야하는데 그 당시 서울대병원엔 고압산소통이 1통밖에 없어서, 순서를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생각이 아직도 나네요. 미국에서는 안과병동은 급박한 병동은 아니라, 4년 동안 CPR이 한번만 일어났고, 초반에 언어문제를 겪었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간호사로 있기 위해서는 언어문제를 극복해서 의료진들과 환자와의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임상에 있으면서 간호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빨리 발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려면 임상에서도 공부를 해야 간호 실무도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교수님께 있어서 '간호'란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학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호라는 일 자체에 대한 매력은, 내가 일을 함으로 해서 대상자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 큰 보상이 되는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간호는 정말 항상 있어야 하는 인생이나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간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우리 학교에서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 때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발전하는 영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가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간호 실무도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평소 정원 가꾸기와 보태니컬 아트를 즐겨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8~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원주택이 있어서 주말에는 가서 꽃도 심고 정원 가꾸는 일을 주로 해요. 보태니컬 아트는 식물 세밀화를 그리는 건데, 자세하게 꽃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1년 정도 전부터 1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우러 가요. 아직은 꽃을 보고 그리는 수준이고, 완전히 창작해서 그리는 건 아직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지금까지는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몇 달씩 걸렸는데, 이제 쉬면서는 이런 걸 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가 너무 바쁘게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좀 여유를 갖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지금은 뚜렷하게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6. 2009~2010년에는 간호대학 학장으로 재임하셨는데요. 그만큼 간호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개될 환경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서도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동안 너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겠다는 것보다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다음 세대의 간호대학 졸업생들도 소명을 갖고 간호계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대학교의 위치가 앞으로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간호대학 졸업했을 때는 미국 등 선진국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바빴지만, 지금은 선진국의 연구나 실무 면에서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 리더십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 대학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나서, 그야말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한국의 간호계 사람들을 다 같이 이끌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나 기계의 발달과 같은 변화가 간호의 영역에도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치, 인간과 인간 간의 human touch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간호가 좀 더 이러한 측면들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먼저 걸어오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potential이 있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끈질기게 탐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그 분야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옛날에는 분야마다 간호사들을 계속 rotation시켰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기보다는, 원하는 분야에 가능하면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것만 성공한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임상에서든 연구에서든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자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 학과장 : 조성현 교수 → 채선미 교수(2016.1.7.자)
- 간호과학연구소장 : 김혜원 교수 → 탁성희 교수(2016.9.1.자)
- 합춘학생생활관장 : 서은영 교수 → 조성현 교수(2016.9.1.자)

간호대학 소식 02

국제교류 Oita University 학생들의 본교 방문

2016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일본 Oita 간호과학대학의 Gerald T. Shirley교수와 대학원생 2명, 학부생 5명이 하계 단기연수를 위해 우리대학을 방문했다. 간호학 박물관, SHINE center, skills lab 등 우리대학의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대학교병원 및 의학박물관, 너싱홈 그린힐,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 시설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다. 자유 시간에는 홍대, 대학로 등의 관광지

를 방문하였고, 한복입기 및 다도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교류는 2000년부터 시작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Oita 간호과학대학의 마지막 교류로, 그간의 노고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송별회에서 Gerald T. Shirley 교수에게 감사장을 전달, 일본 Oita 간호과학대학으로 감사패를 발송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2

국제교류 - 교수교류 조성현 교수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

이번 방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연구자로서, 교수로서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느낀 점을 세 가지 키워드-reflection, flexibility, & leadership-로 요약해볼까 합니다.

연구학자가 저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교수가 그렇듯이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실제 간호현장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외면하고 싶은 문제(낮은 간호인력 배치수준, 높은 이직률 등)를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게 하는 연구, 미래 간호의 모습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병원간호사회 연구비 지원으로 올해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의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상주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병원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앞으로 병원 간호서비스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Plan A가 작동하지 않을 때 Plan B를 만들어내는 flexibility입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된 시스템과 정책은 우리의 문제해결에 다양한 Plan B가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간호대학

은 전통적인 학부과정 이외에 ‘accelerated BS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사학위자를 간호학에 입문시키고, 이들을 미래 간호발전의 동력으로, 리더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간호단위 특성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전달체계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혁신병동 운영, 신입간호사 이직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병원환경과 정책 등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음을,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와 사회적 맥락, 간호 실무에 적용 가능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피해갈 수 없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2009년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Dr. Barbara Mark와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당신 논문 읽었다, 잘했다. 당신 연구하는 데 도움 되는 논문 보내니 한 번 읽어보시게.”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을 보며, 제가 간호대학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개인적인 성향을 핑계 삼아 연구실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특히 실천학문 ‘간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각이 느슨해질 때면 이제 단어 reflection, flexibility, & leadership을 떠올려야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국제교류 - 교수교류 강승완 교수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방문교수

저는 2016년 1학기동안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에서 방문교수로 연구학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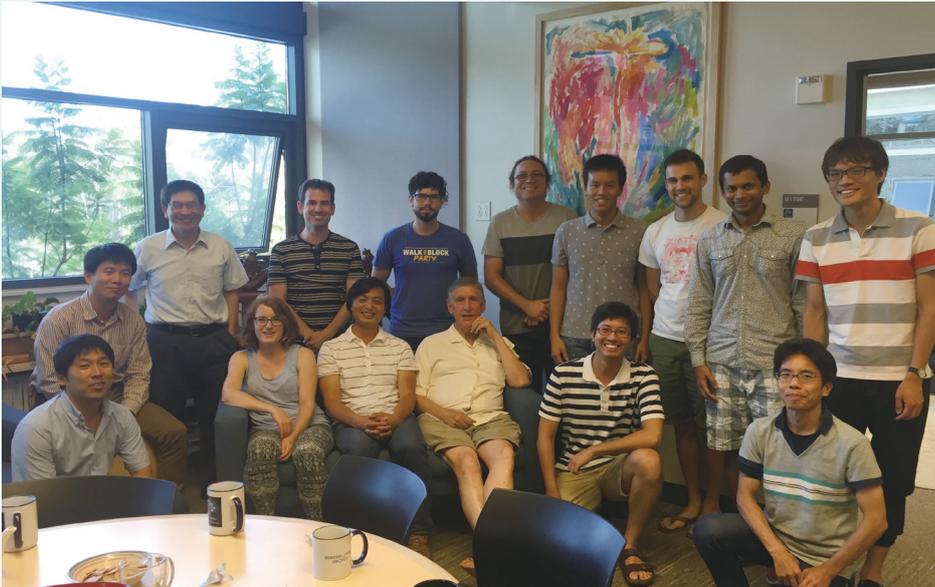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1년 내내 온화하고 청명한 날씨를 자랑하는 곳으로 미국에서 실버세대가 은퇴 후 노년을 보내기에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재학생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한, 탐크루즈를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Top Gun이라는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현재 샌디에고 만에는 Midway호라고 하는 거대한 퇴역 항공모함이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실전에 운영 중인 항공모함 전대가 정박하는 균형도시이기도 합니다.

UCSD는 neuroscience가 매우 강한 대학이며, 저는 computational neuroscience의 세계적인 대가인 Scott Makeig가 책임자로 있는 Swartz Center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 (SCCN)에 있으

면서 지난 4년간 국내에서 정부지정 국가참조표준뇌파센터를 운영하여 축적해둔 한국인의 뇌파 표준 매트릭스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뇌파는 지난 100년간 간질(뇌전증), 뇌사판정 등 제한된 분야에 국한하여 눈으로 판독하던 시대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공학의 도입으로 주파수와 파형에 대한 선형적, 복잡계적 분석이 시행되면서 사람의 인지, 감정, 감각 등에 대한 많은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생체신호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자폐나 ADHD, traumatic brain injury, depression, dementia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DB의 분석결과는 연말 즈음에 학술지에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San Jose에서 열린 biological approach for mental health workshop에 참석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 미세영양소의 불

균형, 환경유래 독성화학물질 등이 뇌 발달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 습니다. 워크숍 이후 샌디에고로 돌아올 때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 는' 명소인 highway 1 (Pacific Coastal Highway)을 2박 3일 일정으 로 운전하며 왔습니다.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나가는 차창 밖으 로 명불허전 절경을 즐겁게 감상하며 짧은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제공동연구의 기틀을 잡았다면, 앞으로 수년간은 실질적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기 연구주제 는 높은 의식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멘탈에 대한 뇌파패턴연구이며, 이를 위해 전통 티벳 명상 수련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뇌파 측정 및 분석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국제교류 - 학생교류 2016학년도 하계 단기연수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16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 간, 학부생 8명(고우리, 김미경, 신재은, 신현경, 오은지, 윤현경, 이지은, 조서희)이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 있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2주 간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global health 강의를 듣고 2주 간 University of Illinois Medical Center에서 실습을 하였다. 연수 참가자 일동은 21세기 소외된 사회에 간호학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임상에서 현지 간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미국의 간호

체계를 느끼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았다. 또한 연수에 함께 참여한 일본, 스페인, 미국, 브라질 등의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나고 관광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9월 6일(화)과 9월 7일(수)에는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에서 국제교류 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선후배 및 동기들과 함께 연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02

국제교류 - 2016학년도 하계 해외단기연수 후기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UIC 연수생 신채은, 윤현경

Introduction

간호대학에 입학하기 전 간호대학 홈페이지에서 미국 하계 연수에 대해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언어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아직 간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여 망설였다. 하지만 3학년인 지금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짧지만 3학년 1학기의 실습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간호와 한국 간호에 대해 조금이나마 비교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하였다.

이번 하계 해외단기연수지는 1955년에 설립된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로, NIH에서 funding for nursing으로 6위를 기록하였고 Midwifery development에서 첫 번째 미국 협력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총 4주의 연수기간 중 2주 간 global health에 관한 강의 및 토의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2주 동안은 Clinical observation & conference를 통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소개

[global health lecture]

첫 2주는 global health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배웠다.

흔히들 'global health' 라 하면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료기술과 건강수준의 차이 등과 같은 문제들이 떠오를 것이다. 나 또한 이런 좁은 범위의 주제들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LGBTQ, 범죄자, 마약, 불법체류자, 난민 등 우리나라 간호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들로부터 우간다, 아프리카, 인도 등 강연자들이 직접 갔다 온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강의까지 global health의 스펙트럼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LGBTQ를 건강과 간호와 연결지어 다뤘을 때 받은 신선한 충격은 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문제가 아직 출발 단계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잘 꺼내어지지 않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더 나아가 간호학의 연장선에서 토론을 한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간호와 지지가 더 절실할 수도 있다. 그것이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성 소수자들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되었고 덕분에 학교 내에 있는 gender neutral restroom에도 가보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 의미 있었던 점은 강의에서 그친 수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매 강의가 시작되기 15

분 전부터, 학생들은 강의주제를 social determinants, 간호, 나라별 문화와 관련지어 토의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령 '이민'에 대한 주제라면, 미국에는 불법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대부분 초반에는 숨어서 지내거나 공장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일본은 이민정책이 까다로워 이민을 온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거의 없으며, 스페인에서는 아랍,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게도 역시 무료 병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의료시스템과 문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다.



[clinical observation]

2주 동안 UIC hospital에서 병원 실습을 하였으며, 한 명의 학생이 9개의 병동 실습을 할 수 있었다. 대개 병원 실습에서는 각 그룹 담당 선생님께서 실습지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실습지에서 간호사 한 명당 학생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실습을 진행하였다. 실습지에서 간호사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환자의 체위변경 등의 간단한 업무를 보조하거나 간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었다. 대부분 병동의 분위기가 자유로웠고 활기찼으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다. 또 어떤 병동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아니어도 실습 학생들에게 자신의 환자를 소개해주며 질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습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호, 그리고 병원 시스템은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단점으로는 무균술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는데, 병동마다, 그리고 간호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요도삽관과 같은 무균술이 정말 중요한 술기는 무균술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무균술이 덜 중요한 일상적인 간호제공 시에는 멸균가운을 재활용하였다. 하지만 장점도 많이 있었다.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는 투약시스템과 의사의 오더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투약 준비 시에는 약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간호사 번호를 등록한 후 알맞은 약을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하나씩 꺼낸다. 투약 시에는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환자 팔찌의 바코드를 먼저 찍고 약물들을 제대로 꺼냈는지 확인하며 약물의 바코드를 하나씩 찍는다. 이처럼 두 번의 철저한 컴퓨터 확인 작업을 통해 투약에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또,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판단하였을 때 잘못 내려진 오더라고 생각되면 한국에서는 직접 의사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야 했지만 미국에서는 웹상으로 오더에 대한 캔슬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간호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각 실습 병동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국에는 없는 병동도 있었고,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환자들의 중증도가 다른 병동도 있었다. 또 한국에서도 아직 모든 실습을 다 완료한 것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처음 실습을 나간 병동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분만장이었는데, 한국과 다르게 일반적인 산모의 분만을 진행할 때 분만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4, 6인실이 없고 1,2인실의 병실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각 병실에 분만에 필요한 모든 기계와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신생아를 위한 인큐베이터도 있었다. 따라서 분만 뒤에는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병실에서 지낼 수 있어 산모가 따로 신생아실에 가지 않아도 자기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다.

[Clinical conference]

컨퍼런스는 case study, patient presentation과 journal study로 이루어졌다. Case study는 A, B조와 C, D조가 각각 하나의 케이스를 맡아 이를 바탕으로 케이스 요약 및 간호진단을 내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환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에 주어진 8-10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 주 다른 케이스로 Hepatitis C, COPD 등을 다루었으며, 한국에서 배웠던 질병 및 간호를 복습할 수 있었다.

patient presentation과 journal study는 case study와 다르게 2명씩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다. 대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발

표를 했고, 특히 patient presentation의 간호 진단을 내릴 때 다른 나라, 다른 학교에서는 간호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case study는 2명에서 원하는 주제를 골라 이에 대한 요약 및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세 가지 발표 모두 개인과제가 아닌 조별과제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발표뿐만 아니라 준비, 의사소통, 발표에 대한 질문 모두 영어로 해야 했다. 이번 연수 만큼 해외에 오래 있어본 적은 처음이라 영어로 듣고 답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다.

시카고 투어

시카고는 자연과 도시적인 모습을 모두 갖춘 아름다운 도시였다. 윌리스타워, 존헨콕타워와 같은 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시카고 시청, 쇼핑몰인 워터타워플레이스와 같은 일반적인 건물마저 너무 멋졌다. 걸어가면서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술작품을 구경할 수 있고 빌딩과 빌딩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격은 섬세하고 규칙적이었다.

시카고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있었는데, 밀레니엄 파크는 그 중 하나였다. 'The Bean' 이라고도 불리는 cloud gate에서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시카고 시민의 얼굴들이 13분마다 교체되어 물이 뿜어져 나오는 crown fountain에서는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아이들 틈에서 우리도 아이들처럼 물놀이를 즐겼다. 밀레니엄 파크의 또 다른 매력은 여름밤이면 열리는 movie festival 인데 정해진 날짜에 다양한 영화를 야외광장에 틀어준다. 가족들, 연인들 혹은 혼자이더라도 잠시 둘러 간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 나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영화를 봤는데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너무 재밌게 즐겼다.

밤에는 버킹엄 분수나 시카고 강에서 야경을 즐겼는데, 자연과 너무 조화롭게 분포하고 있는 빌딩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하이 시카고 호스텔에서 제공하는 시카고 강 보트 투어 티켓으로 예쁜 건축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1시간 반 동안 경치를 바라보면 너무 행복했다. 힘든 수업과 과제로 다들 지쳐있었지만 미시간 호수에 있는 Navy Pier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니 그간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다.

수업 중에 친해진 일본 친구들과 north avenue beach에 가기도 했고 rooftop pub에서 맛있는 칵테일 한 잔도 했다. 이 외에도 city pass로 field 박물관, adler 천문관, shedd 아쿠아리움, 시카고 미술관에 방문해 다양한 예술작품, 동식물들, 역사를 보고 배웠다.

이번 하계 해외단기연수는 학문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졸업 후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갈 기회가 있다면 그 도시는 시카고였으면 좋겠다.



간호대학 소식 03

연구실 탐방 소아·청소년 정신간호 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간호 연구실은 최희승 교수와 정신간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연구실이다. 다양한 정신간호학 연구 분야 중에서도 최희승 교수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분야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특히 지역사회기반 우울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이며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다.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웹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수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지난 3년간 진행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웹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 연구를 통해서도 청소년 정신건강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웹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고 바쁜 생활로 인해 부모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수면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분노)과 수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가 평가와 액티그래피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 그리고 부모의 관찰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East Asian Forum for Nursing Scholars,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등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최희승 교수와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국제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하여 간호학 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연구실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선아 교수와 의료인, 부모, 교사 등 타인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 돌봄과 성장연구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김수미 박사를 비롯하여 김효정, 권태균, 장지은 선생이 현재 서울대 병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고희성, 김영주, 김찬희, 이윤미, 황선영 학생이 박사과정에서 그리고 김현정, 신소연, 서승희, 이나나, 장은현, 정은지, 전예슬, 조은혜, 편보경, 홍도운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해 잠시 쉬어가고 있는 안은숙, 에릭 페르난데즈 선생도 있다.

학업, 연구, 가정,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연구실의 구성원 모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보듬으며 나누는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가 소아·청소년 정신간호 연구실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성과와 더 넓고 따뜻한 돌봄을 꿈꾸며 소아·청소년 정신간호 연구실 가족들은 오늘도 함께 애쓰고 있다.



〈2015년 EAFONS 참가〉



〈2016년 봄날 저녁에〉

간호대학 소식 04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교류

1. 간호대학-간호부문 학생실습간담회

2016년 5월 3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학생실습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시간강사 28명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외래교원 및 임상실습 프리셉터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실습간담회는 ‘啐啄同時(줄탁동시), 학생을 복돋우는 면담법이라는 주제 아래 채선미 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성재 학장과 송경자 간호본부장의 인사로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장성단 위기상담팀장의 ‘啐啄同時(줄탁동시), 학생을 복돋우는 면담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특강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휴식시간 이후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들의 학생 실습 소감 발표를 통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입장에서 실습을 통해 느꼈던 점과 실습 지도교원들의 성심어린 실습 지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실습 소감 발표 이후 전체 토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실습 교과목들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5월 3일 간호대학-간호부문 학생실습간담회〉

2.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6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은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5호에서 간호대학 4학년 학부생 및 졸업예정자 37명을 대상으로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최은하 서울대학교병원 간호행정파트장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면접의 진행방식과 준비사항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실전 면접에서 유용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3. 2016학년도 제2차 간호대학-간호부문 협의회

2016년 8월 31일 합춘원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있었다. 송경자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시작하여 간호부문과 간호대학의 지난 상반기 활동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하반기에 진행될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1일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간호대학 소식 05

2016학년도 하계 교수 Workshop

2016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2016학년도 간호대학 하계 교수 워크숍이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20명과 조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방안’을 주제로 김성재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박연환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4일 오전에는 ‘간호대학 발전방향 수립’이라는 소제목 아래 채선미 학과장의 2016-201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운영성과 목표와 2016년 조선일보-QS 학문분야 평가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 간호대학 발전 성과 목표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체 토의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박연환 부학장이 ‘간호대학 학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하고 전체 교수들이 교양필수교과목 운영, 3주기 인증평가 기준 점검 및 인문학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오대산 월정사와 봉평 이효석 문화마을 등을 둘러보며 간호대학 교수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간호대학 소식 06

샤인센터(SHINE Center) 2차 교육프로그램 개최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총 9일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Simulation-based, Humanity-Integrated Nursing Education Center)에서 샤인센터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간호대학의 종합 임상시뮬레이션 실습센터인 샤인센터가 개설된 2012년 이후의 다년간 교육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지난 2월에 이어 2회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김성재 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2차 교육 프로그램은 총 9개의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4개의 프로그램과 간호학 교육에의 적용 가능한 최신 교수법 2개, 연구방법론 3개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초급 과정과 각 전공 과목별(성인, 정신, 아동) 심화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으며, 교수법 프로그램은 Action Methods, Flipped Learning 등의 최신 교수법이 포함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의 철학적 관점에서부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과 메타분석 실습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아우르면서 연구방법론 교육과정의 정점을 이루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2회차에 들어선 샤인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간호대학 교수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총 217명이 참여하여 해당 과정을 각각 수료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6.37(±1.23)

으로 높았으며, 본 과정의 수료생들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경험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보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계속적인 교육 참가에 대한 의사를 표했다.

앞으로 샤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간호술기의 숙련도 함양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 사고를 하는 유능한 간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실천과 실무역량을 중시하는 최신 간호교육 경향에 발맞추어 간호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채우고, 최신 교수법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일구어가는 '간호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샤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과정은 우리대학의 서은영 교수가 샤인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김성재 교수, 박현애 교수,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황보영 교수, 강자현 교수, 윤주영 교수가 교수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별히 2회차 교육에는 우리대학 철학과 이남인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박동아 박사, JKAN의 편집장인 서현주 교수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였다. 샤인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연 2회 매 방학에 시행할 예정으로 2017년 2월에 3차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성인간호학 전공심화 프로그램 중 발표시간〉



〈김성재 학장의 환영사〉



〈정신간호학 전공 심화 교육 프로그램 조별 토의시간〉



〈Flipped Learning Methods 강의 시간〉

간호대학 소식 07

제 70회 후기 학위수여식

2016년 8월 29일 제 70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851명, 석사 1,000명, 박사 577명 총 2,428명이 학위를 수여했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지혜, 패기, 열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과감하게 맞서 나가고자 하는 신념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끊임없는 자기성장, 헌신과 배려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감성, 충실한 지식, 창조적 지혜를 통해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문제들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 축사 연사로는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40년 가까이 한센 병 환자 치료를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헌신해온 김인권 에양병원 명예원장(서울대 의대 1975년 졸업)이 초빙되었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지성과 겸손, 참여와 봉사정신을, 김인권 명예원장은 성실하고 즐거운 사회생활,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 등을 각각 축사에서 강조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위수여자들 비롯해 간호대학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학위 수여자의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간호대학에서는 학사 2명, 석사 9명, 박사 6명이 학위를 받았다.

간호대학 소식 08

평생교육원 산림치유지도사 과정 기념식수 행사

간호대학이 주관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국가 자격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이 2016년 4월 9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 개설되어 2기를 맞은 본 교육 과정은 4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62시간동안 49명이 교육을 받는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간호대학 제2연구동 화단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성재 학장, 서울대학교 산림치유지도사 2급과정 이인숙 주임교수, 방경숙 부주임교수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현재 1기 수료생들은 산림치유라는 큰 목표를 갖고 2016년 4월 서울힐리아 숲치유 협동조합(이사장 하양숙 간호대학 명예교수)을 설립하였다. 서울 힐리아 숲치유 협동조합은 그간 서부녹지

공원관리소와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올 가을에는 노을공원 실버 숲치유 프로그램, 오금공원 장애인프로그램 등 그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인증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은 산림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과 보건 분야의 전문 교수진에 의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그리고 명사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9

직원동정 SHINE Center 사무국장 취임

2016년 2월 22일 간호대학 SHINE Center 신입 사무국장으로 유수영 사무국장이 취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9

직원동정 행정실 소개

○ 행정실장 정상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8년 4월부터 강원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1991년 10월에 서울대학교로 전입하여 25년간 대학본부 학생과, 교무과, 총무과, 재무과, 기획과와 단과대학 의대, 사범대, 사회대 등을 거쳐 간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 정상구입니다.

하는 일은 행정실 내의 모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수와 학생에게는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연구와 학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간호대학의 무한한 발전과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서무, 시설 이익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의 담당업무는 시설과 일반서무입니다.

저는 연건캠퍼스(병원, 치과대학, 의과대학)에서 근무한지 10월이면 30년째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다양한 시설사업을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대학 시설 환경개선에 저의 역량을 발휘하여 교수님의 교육,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 세계적인 간호대학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의 교육 및 연구업무에 불편함과 개선할 사항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교무주임 김나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무행정실 김나현입니다.

2016년 7월 1일자로 간호대학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교원 인사업무, 대학·대학원 입학고사 관리, 교과과정 편성 및 개편 업무,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시험관리, 교원 제증명발급 등 간호대학 교무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 함춘학생생활관 김근아 선생님

저는 장학금, 동아리 지원 및 함춘학생생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학업무는 거의 처음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소득분위 산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기간 내에 국가장학 뿐 아니라 교내장학 등록도 본인이 꼭 해주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무 장미숙 선생님

간호대학에 근무한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음악대학 등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간호대학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회계라는 업무를 접하면서 잦은 실수와 착오도 있었지만 교수님과 조교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구성원끼리 화합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무 정현주 선생님

제가 맡은 업무는 학사관리, 수업 및 학적관리, 교무 교원 국외 여행, 시간강사, 겸임교원 위촉, 논문심사 업무 등입니다. 학교생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실에 전화,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10

간호대학 환경개선

○ 간호대학 나이트게일 동상 이전

- 일 시 : 2016. 3. 22
- 공사내용 : 본관 앞 잔디밭으로 이전

○ 본관 4층 여자화장실 공사

- 일 시 : 2016. 04. 14
- 공사내용 : 타일 보수 공사

○ 연구동 환경개선 공사

- 일 시 : 2016. 5. 17~5. 19
- 공사내용 : 연구동 후문 및 옥탑 공사

○ 학생휴게실 환경개선

- 일 시 : 2016. 05. 10.
- 공사내용 : 다목적실 전원 인입 및 책상, 의자 교체

○ 본관 408호 최첨단 세미나실 공사

- 일 시 : 2016. 07. 04~08. 30
- 공사내용 : Flipped Learning 강의실 시스템 구축, 스윙전동침대 설치 등

○ 연구동 변기 교체

- 일 시 : 2016. 8. 6
- 공사내용 : 여자화장실 변기 교체

○ 강의실 및 세미나실 보수(도장)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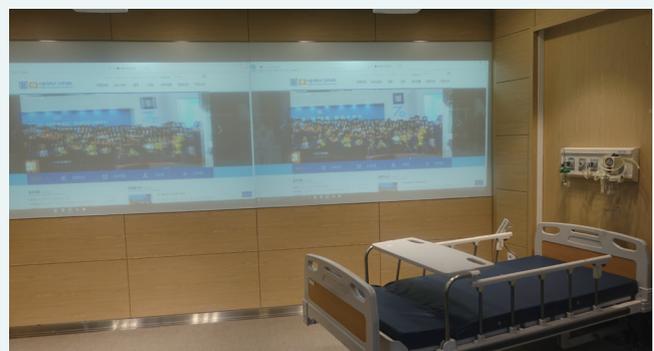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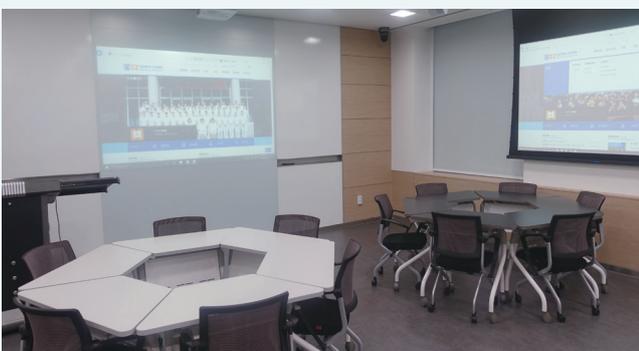
- 일 시 : 2016. 8. 29.~8. 30.
- 공사내용 : 노후화 및 학기 시작 전 보수(도장)공사

○ 잡초제거 및 환경개선 공사

- 일 시 : 2016. 09. 08
- 공사내용 : 현관 잔디 및 옥상정원



〈본관 1층 학생휴게실〉



〈본관 408호 Flipped Learning 강의실 시스템〉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16년 검무연구원 연구동향세미나

2016년 검무연구원 연구동향 세미나가 5월 4일, 5월 11일에 개최되었다. 검무연구원의 최근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간호대학 교수는 물론 재학생들의 연구과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학기 검무연구원 연구동향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주제	연자
5월 4일	지역사회 장기요양과 인간중심 케어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월 11일	간호와 감염관리	강자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월 4일 '지역사회 장기요양과 인간중심 케어'〉



〈5월 11일 '간호와 감염관리'〉

2학기 검무연구원 연구동향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주제	연자
10월 5일	Reflection, Flexibility, & Leadership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0월 12일	Computational neuroscience & QEEG mapping in digital mental care	강승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2016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2016년 하반기에는 법의학, 다문화 가정, 환경 및 기타 교양과목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학술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	주제	연자/소속
9/28	죽음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 법의학적 관점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10/19	다문화 가족 복지 정책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9	수학, 그 이해와 오해!	권오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11/16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의 성과와 과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1/30	다문화 가족: 현황과 쟁점	진미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2016년 3월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5개의 학술팀 결과발표회를 11월 23일(수)에 간호대학 본관 5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대학원생 학술모임에 선정된 학술모임은 다음과 같다.

전공	구성원	학술모임명
간호정보학	이지산 외 5명	SNS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본 Health IT의 최근 트렌드
간호관리학	장형은 외 4인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성인간호학	김용범 외 5인	수면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	김다은 외 4인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 기능저하 예방 중재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정신간호학	한슬기 외 5인	통합적 문헌고찰 작성법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2016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2016년 5월 31일 Dr. Kathleen Dracup (UCSF) 교수님을 모시고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관련 다양한 활동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임상실무 현장에서의 적용과 연구 활동의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7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박창기 교수님(UIC)의 통계세미나를 통해 최근 간호와 보건학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통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흔히 범하기 쉬운 통계방법 및 분석에 대해 파악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후 참석자 개인의 연구의 통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되었다.

2학기에는 우리대학의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사인 Dr. Alan Barnard (Queensland University)를 학술대회 다음날인 11월 3일에 모시고 간호에 적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활용과 영향에 대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Dr. Fernando Martin-Sanchez (Cornell University)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	주제	연자
5월 31일	Strategies to Achieve Compliance with Evidence-Based Practice	Dr. Kathleen Dracup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7월 14~15일	간호연구를 위한 정보기반의 사결정과 연구 질문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방법	Dr. Chang Gi Park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11월 3일	What influences technology has on their nursing practice and the people for whom they care	Dr. Alan Barnard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11월 5일	Participatory medicine, precision medicine에서 인간 genome, phenome, exosome의 역할	Dr. Fernando Martin-Sanchez (Department of Healthcare Policy and Research, Cornell University)



<5월 31일 'Strategies to Achieve Compliance with Evidence-Based Practice'>



<7월 14~15일 '간호연구를 위한 정보기반 의사결정과 연구 질문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방법'>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본교와 MOU를 체결한 미네소타대학교와 오이타대학의 학장을 초청하고, 시그마학회의 전 총재인 Dr. Carol Huston을 초청하여 11월 1일 “Advances in Global Nursing Education and Leadership” 이란 주제로 국제간호학술세미나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간호학 교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의 관리자들에겐 미래간호를 향한 모색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음날인 11월 2일 “Innovative Nursing care and Technology”란 주제로 제11차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간호연구 및 간호현장에 적용되는 방법과 과학기술이 간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심도 있게 탐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등록 및 초록접수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The 70th Anniversary of SNU International Nursing Symposium

ADVANCES IN GLOBAL NURSING EDUCATION AND LEADERSHIP

November 1, 2016

Hoam Faculty House, Mugunghwa Hall(2nd floor, Convention Center)

13:00~13:30	Registration
13:30~13:40	Opening Remarks
13:40~14:30	Collaboration of the Global Nursing Education between SON SNU and Univ. Minnesota Speaker: Connie White Delaney PhD, RN, FAAN, FACMI(Dean, University of Minnesota, U.S.A)
14:30~15:20	Global Nursing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Speaker: Carol Huston MSN, MPA, DPA, FAAN(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U.S.A)
15:20~15:40	Coffee Break
15:40~16:20	Leadership Role for Innovation in Nursing Speaker: Sachiyo Murashima PhD, PHN, RN(Dean,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Japan)
16:20~17:00	Nursing Education and Leadership in Korea Sungjae Kim PhD, RN(D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7:00~17:30	Panel Discussion & Closing Remarks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NOVATIVE NURSING CARE AND TECHNOLOGY

November 2, 2016

Hoam Faculty House, Mugunghwa Hall(2nd floor, Convention Center)

09:30~10:00	Registration
10:00~10:10	Opening Remarks
Current Issue & Trend in Nursing Care	
10:10~10:50	Perspectives on Innovation in Nursing Care Dr. Connie White Delaney (University of Minnesota, U.S.A.)
10:50~11:30	Application of Big Data in Nursing Care Dr. Hyeoun-Ae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30~11:50	Coffee Break
Nature of Nursing & Innovation	
11:50~12:30	Reflections on the Implication of Technology for Nursing Practice Dr. Alan Barnard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12:30~14:00	Lunch & Poster Round
14:00~14:40	Clinical Application of Care Robots for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Dr. Jae-Young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Population based Innovation Nursing Care & Research	
14:40~15:20	The Coimagination Method: Conversation Assistive Technology for Prevention of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Dr. Mihoko Otake (Chiba University, Japan)
15:20~15:40	Coffee Break
15:40~16:20	Computer Games and Activities for Persons with Alzheimer's Disease: Tailored Person-centered Model Dr. Sunghee H Ta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6:20~17:00	Panel Discussion & Closing Remarks

학부 소식 01

2016학년도 제 25대 학생회 ‘임팩트(Impact)’ 활동

1. 1학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총 개강파티

2016년 4월 11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학기 총 개강파티가 열렸다. 새로 들어온 16학번 신입생들과 많은 선배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로에 모여 새학기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즐거운 개강파티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반(데이반, 이브닝반, 나이트반, 오프반)체제에 따라 새롭게 자신의 반 소속을 얻은 신입생들은 자기 반의 선배들에게 새 학기의 조언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학생회가 준비한 여러 이벤트를 즐겼다. 1학기의 새 시작을 알리는 총 개강파티에 무려 100명이 넘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쳤다.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총 엠티

2016년 3월 25~26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총 엠티가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총 엠티는 간호대학의 모든 선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행사인 만큼 선후배간의 만남의 장이 펼쳐지는 행사이다. 가평에 도착한 학생들은 학생회의 문화자치국에서 준비한 게임들을 즐긴 후에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 저녁식사 이후 선후배 간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의 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간호대학 학생회에서는 이처럼 선후배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들을 많이 기획할 예정이다.

3. 시험기간 간식사업

간호대학 학생회에서는 간호대학 재학생들의 시험기간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간식사업을 진행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학생들이 가장 먹고 싶은 간식이 무엇인지 직접 조사하여 선정한 간식을 간호대학 제2연구동 현관에서 나누어 주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100인분의 도넛을 나누어 주었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100인분의 밥버거와 미니콜라를 나누어주었다. 시험기간 동안 지쳐있는 학생들의 심신을 달래고 힘을 북돋우는 뜻 깊은 간식사업이었다.

4. 관악 홈커밍 데이

2016년 5월 10일 제 23대, 24대 학생회에 이어 관악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모든 수업을 관악캠퍼스에서 듣는 1학년들이 연건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여러 선배들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자 선배들이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관악캠퍼스로 가는 행사이다. 행사 기획 시에는 버들골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 예기치 못하게 비가 오는 바람

에 관악캠퍼스의 간호학과 방에 모여서 치킨과 맥주를 즐겼다.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선후배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

5. 생활강연 - 엑셀, 요가

고급 문서작성능력을 중시하는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에서는 3월 3일(목) 엑셀강연을 개최하였다. 강연 기획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강연을 통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5월 16~20일에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세교정을 위하여 요가강연을 실시하였다.

6. 근로자의 날 행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함춘학생생활관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근로자분들이 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관리해주시는 경비 담당 직원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미화 담당 직원 등 최고의 학업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 이러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간호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간단한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적은 편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7. 연건 대동제

2016년 9월 2일 연건캠퍼스의 3개 단과대학(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간호대학)의 주관으로 연건대동제가 개최되었다. 각 단과대학의 여러 댄스 동아리의 공연을 통해 축제의 불거리를 선사하였으며 ‘연건 노래자랑’ 코너를 기획하여 노래방 점수 90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포켓몬GO’ 게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에서 착안하여서 ‘의치간GO’를 실시하였다. 실제



각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학생들이 포켓몬 역할을 수행고, 참가 학생들은 포켓몬을 잡아 미션을 수행 후 받는 카드를 4장 모으면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종 업체의 후원으로 제공되는 상품과 다양한 식음료들을 제공하는 부스가 설치되어 어느 때보다 즐길 거리가 풍성했던 대동제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연건 캠퍼스 내 단과대학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대동제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8. 총 운동회 & 2학기 총 개강파티

2016년 9월 3일 간호대학 학생들의 건강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의과학관 체육관에서 총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다리 밟기, 전략 줄다리기, 반 대항 피구 등 다양한 종목들이 진행되었다. 김성재 학장과 채선미 학과장이 참석하여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총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2학기맞이 총 개강파티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맞이하여 선후배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보냈다.

〈원고작성 : 간호대학 학생회 사무국장 박광훈〉



학부 소식 02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개최

2016년 5월 26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학부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3학년 2학기과 4학년 1학기에 걸쳐 “간호연구실습” 교과목을 통해 시행된 연구결과를 각 조별로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선미 학과장의 사회와 박연환 간호대학 부학장의 인사말로 연구발표회가 시작되었으며, 교과목 담당 교수인 김정은 교수와 박연환 부학장, 채선미 학과장이 논문발표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연구발표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간호대생의 실습 중 활동에 대한 견해 조사: S대학교 병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김영진 외)”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으로는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MERS에 대한 지식, 인식에 따른 예방행동 연구(이현주 외)”, “일개 대학 의대, 간호대 학생대상 의사-간호사 협업에 대한 인식과 접촉의 관계연구(조은선 외)”가 선정되었다.



학부 소식 03

동아리 탐방 : 서울대학교 응원단

간호대학 15학번 박광훈

점점 획일화되어가는 대학생활로 지쳐만 가는 학생들 그리고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매일 틀에 정해진 딱딱한 수업과 과제들과 생계를 위한 각종 아르바이트가 우리 대학생들의 삶의 무게를 더욱 더 짓누르는 듯하다. 이렇게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는 20대 청춘의 대학생들이 느끼는 무력감들이 점점 커지는 현상은 비단 서울대학교라고 비켜가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취업난과 점점 늘어나는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삶에서도 열정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뭉쳐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서울대학교만의 고유한 응원문화를 만들어서 이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면서 응원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응원단이 탄생하였다. 서울대학교 응원단은 2015년 6월부터 서울대학교 응원단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한 학생들이 모여 창립의 기틀을 만들었고 이후에 2015년 11월에 정식 응원단원을 선발하였다. 초창기 창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공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의 학과 사람들이 모여 응원단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에 11월에 본격적으로 무대에 직접 뛰는 응원단원으로 사범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창립 당시 서울대학교 응원단의 훈련부장과 응원단장직 모두 간호학과 학생들이 맡게 되었다.

이때부터 뽑힌 응원단원은 창립기와 더불어 특별기수로 남겨놓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0.5기라는 특별기수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 기수는 다음 해인 2016년 여러 단과대학에서 열리는 새내기 배움터무대에 서기 위해 연습을 거듭하였다. 새내기 배움터 공연 이후 새로운 신입기수 1기를 선발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2016년 3월 새로운 1기 신입기수가 선발되었다.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치의학대학원, 사범대학,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여러 단과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지금 서울대학교 응원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축제 예선무대를 치른 상태로 본선무대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에도 초청을 받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응원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교내행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2017년 새내기대학 무대 및 각 단과대학의 새내기배움터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학부 소식 04

학생이야기: '제1회 전국 간호대학생의 날' 을 기획하면서

간호대학 13학번 조은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5대 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은영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한복판에서 전국 간호대학생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제 1회 전국 간호대학생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학생회 회장을 지내다보니 전국의 간호대학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집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대표이기에 참석하였던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과의 만남은 항상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같은 간호학을 배우는데도 방식과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고 가치관과 학문에 대한 생각과 분위기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정으로 이런 기회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우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만든다면 다양한 배울 점을 통해 언젠가는 개인의 앞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행사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대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에서 간호학에 관련한 주제를 잡고 토의해나가는 학술적인 행사를 준비하였기에 진행방식과 전체구성 및 주제선정에 대해 수많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간호대학생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각 학교마다 교과과정과 실습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보니 전국 간호대학생의 입장을 아우르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쉽

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개최된 제 1회 전국 간호대학생의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케이스로 토의를 진행하고 임상에 계신 수간호사님께서 강연을 진행하고 토의주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남자간호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명석 간호사 선생님과 전국 간호대학생연합 의장인 김민준님께서 강연해주셨습니다. 마지막 3부는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스스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로부터 간호인의 발전을 꿈꾸는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공통점 아래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강연의 구성이 적절했으며, 1~4학년의 다양한 학년이 존재함에도 각 학년 나름의 생각을 얻어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 전국의 단위로 형성되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2회, 3회의 전국간호대학생의 날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간호대학들이 주관 대학으로 행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날' 을 통해 나아가서는 한국 간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대학원 소식 01

2015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석사(9명)

송인경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
전보민	재가노인의 수면 관련요인 조사연구
양은진	중환자실 간호사의 불안이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민경	조혈모세포 이식 환아와 부모가 지각하는 환아의 통증 차이와 관련 요인
홍영주	중동환자들의 서비스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결정 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iddle Eastern Patients' Satisfaction with Services and Revisit Decisions
강은경	간호사의 섬망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 수행과 관련요인
정동연	노인 암환자의 종합병원 입원사정 자료로 분석한 다약제 복용 (Polypharmacy) 실태
조유미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 및 중요도의 변화
바알사이칸	Patient-Related Factors to Pain Management among Mongolian Cancer Patients

간호학박사(6명)

정은영	혈액투석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결과 차이
유미수	황금 주머니를 가진 나로 재탄생하기: 장루를 가진 암환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 과정
배현지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미친 영향
김해진	질병체험 내러티브를 활용한 간호학 교수학습법의 개발 및 효과
이수진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고려한 노인 당뇨병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한송이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구조모형: 선택·최적화·보상(SOC) 전략을 활용하여

대학원 소식 02

2016학년도 대학원생 workshop

2016년 5월 19일(목)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2016학년도 대학원생 workshop이 개최되었다. '간당~워크샵!'이라는 제목아래 간호대학 대학원생들을 위한 유용한 특강들과 연구와 학문을 위한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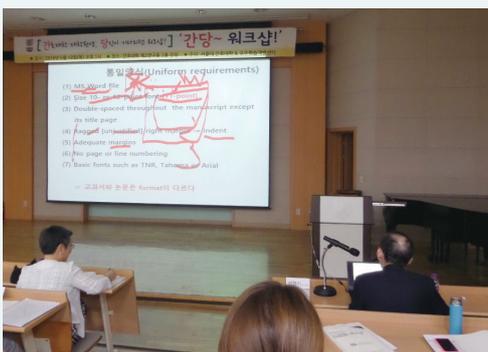
첫 번째 특강으로 의과대학 민양기 교수님을 모시고 영어 의학논문 작성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간호대학 최스미 교수님의 '간호학분야 영어 논문 작성법' 특강이 이어졌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 논문 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조언들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차지협의회 윤창규 회장의 서울대학교 대

학원 자치협의회 소개와 간호대학 대학원 학생자치회 이지산 회장의 간호대학 대학원생 커뮤니티 소개 시간을 통해 간호대학 대학원생들이 보다 대학원 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의 유학생들을 토대로 국내외 대학원 생활의 차이점과 적응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박연환 부학장과 대학원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대학원생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쳤다.

간호대학 대학원 학생자치회의 세심한 준비로 간호대학 대학원생들이 보다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즐기며 학문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학원 소식 03

대학원생 이야기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ACP(The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and the Behavioral Sciences)/ACERP(The Asian Conference on Ethics, Religion and Philosophy) 2016을 다녀와서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고태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요즘이다. 시 긴팔을 꺼내다보면 지난 4월의 고베에서의 추억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 3월31일부터 4월 3일 저는 일본 고베에서 열렸던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ACP/ACERP 2016 에 참석하였습니다.

송미순 교수님께서서는 매년 1회 이상은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 경험을 쌓게 해준 교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에 특히 이번 학회는 교수님의 퇴임을 앞두고 제자들이 교수님께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교수님의 마지막 연구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연구원 한 명 한 명이 각각 초록을 들고 교수님과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하자라는 의견을 모아 준비한 의미 있는 학회였습니다. 학기 중이었지만 가까이 있는 박연환 교수님을 비롯하여 노인간호연구팀, 만성질환간호연구팀, 그리고 청주대 서경산 교수님, 멀리 제주에서 최수영 교수님까지 분주한 가운데도 각자 수업을 마치고 일본에서 모였기에 더욱 기대되고 설렘이었습니다.

고베의 4월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바로 벚꽃이 만개하는 하나미(花見)의 계절로 꽃구경 또는 꽃놀이의 절정이었습니다. 가나긴 입국심사 줄은 이를 말해줄듯 어느 때 보다 길었으며 이는 모두의 만남을 더욱 고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호텔에서 짐을 내리고 학회장인 Kobe Art center에서 만난 학회 첫날의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의 9개의 만성질환 자기관리

와 관련된 행위변화 중재포스터들은 학회 전 기간에 걸쳐 매일 나누어 발표가 되었고 그때마다 포스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학회 주제가 “justice”였기에 더욱이 각국의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에 대한 토론이 많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지역, 학문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번 학회는 일본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꽃꽂이와 다례(차예절)등을 같이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례를 배우며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회장을 오가는 길마다 벚꽃이 만개하였으며 주말을 맞이하여 모두가 소풍을 나와 싸운 도시락을 먹는 광경이 마치 저희의 여의도 벚꽃축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일본에서는 벚꽃이 만개한 나무아래서 화목을 기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좋은 시작을 기원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또한 못 만났던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교수님과 함께 학자로써 인생의 선배로써 먼저 경험하신 결혼, 출산, 학업, 진로, 학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쫓아 걸어가는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택과 고민 속에 있는 대학원과정에서 국제학술대회 참석은 학회를 통한 학문의 아이디어도 얻고 교수님과 동료들과의 동행과정에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짧은 쉽 속에 한 발짝 더 성장하게 되는 좋은 기회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원 과정 동안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소식 03

대학원생 이야기 - 외국인 대학원생 적응기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박금실

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2학기 중국유학생 박금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한국의 최고인 대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재, 천재들만 모인다는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학과를 다녔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이십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전부 한국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으로 공부했고 교육도 한국식으로 받았습니니다. 그러던 제가 졸업하고 연변대학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친절간호사”, “우수간부”로 선정되었었고, 병원 배구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편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간호와 너무 차이가 났던 중국간호의 현실, 내가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변할 것만 같지 않는 불편한 진실, 홀로 소리쳐 보아도 전혀 반응이 되지 않는 이 실정에 나는 무기력하고 점점 텅텅해지면서 지쳐버렸고 나중에는 똑같이 그 속에서 함께 웃으면서 동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한 선배의 조언이 나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너 여기가 좋아? 네가 원했던 간호는 이거 아니잖아.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자. 여기에서는 더 발전된 간호는 배울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과연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 몸은 이미 편안하면서 타협하는 그 생활에 빠져있는데 다시 내가 꿈꾸던 그 간호를 공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학부 교수님의 추천으로 배움의 길이 열려 저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온 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학부 때에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대학원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연구도 이렇게 매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습니니다.

지난 학기에 김성재 교수님과 서은영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이론을 그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처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론은 따분한 과목인데 교수님의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이론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수업에 충실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씩 수업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간호이론이 좋아졌고 어느 순간 책상에 머리 맞대고 앉아서 이론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변화인거죠. 서은영 교수님의 수업은 저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간호사가 되었고, 우린 어떤 간호를 해야 하는지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잊을까 싶으면 각성시켜주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간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간호사로서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 수업을 들으면서 간호에 대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한국에서 임상경험을 해보지 못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있어서 여러모로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기 선생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나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곧 논문자격시험과 연구계획서 발표와 요지 발표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잘 해내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과정을 졸업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확신하는 것은 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나에게 희망과 도전과 비전을 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의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대학원 소식 04

연구지원금 수여

지원금	수여자 이름	전공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한마음장학금	문선희	성인 박사과정
	변아정	정보 석사과정
	이자영	성인 석사과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사회 포스터상(10만원)	전은주	정보 박사수료

대학원 소식 05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6년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단국대학교	김영란	간호학 강의 전담

대학원 소식 06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The 19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2016.3.14.~15)		
A cervical cancer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teenage girls : A mixed method study (포스터 발표)	이다빛(모성 석박통합)	
Necessity of the sexuality education of the women with cancer (포스터 발표)	강샘이(모성 석박통합)	
Perceived parental stress and nursing support (포스터 발표)	한수연(아동 박사과정)	
The effect of human papilloma virus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Quasi experimental study (구두발표)	이영진(모성 박사과정)	
The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 the Behavioral Sciences 2016 (2016.3.31.~4.3)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of Older Adults in an Urban City: Community-Based Descriptive Cohort Study (포스터 발표)	하지연(성인 석박통합)	
A test of feasibility for a dementia prevention program in Korean senior center (포스터 발표)	임승화, 김향란(성인 박사과정)	
Development and test of th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for type 2 diabetes (포스터 발표)	고하나(성인 박사과정) 이수진(성인 박사졸업)	
Effects of Health Coaching Self-Management Program for Nursing Home Residents : A Pilot program for nursing home resident (포스터 발표)	문선희, 이민혜(성인 박사과정)	
Developing a senior center-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 A pilot study (포스터 발표)	최정실, 고하나(성인 박사과정)	
Effect of IMB model-based health behavior change program for arthritis patients: A Pilot study (포스터 발표)	이수진(성인 박사졸업) 최정실(성인 박사과정)	
The effect of health behavior change program for elderly people with hypertension: A pilot study (포스터 발표)	김향란, 임승화(성인 박사과정)	
13th International Congress in Nursing Informatics (2016.6.25.~2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for pediatric obesity using mobile technology (구두발표)	이지산(의료정보 박사과정) 박미화(정보 박사수료)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Low Fertility Ontology for Analyzing Social Data in Korea (포스터 발표)	이지현(정보 박사수료)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dolescents' Depression Ontology for Analyzing Social Data (구두발표)	정혜실(정보 박사과정)	
Is the ISO Reference Terminology Model for Nursing Actions Enough to Describe Nursing Actions? (포스터 발표)	이주연(정보 박사수료)	
Mobile Apps Providing Tailored Nursing Interventions for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구두발표)	전은주(정보 박사수료)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Health Information Seekers with Mobile (포스터 발표)	변아정(정보 석사과정)	
The 3rd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2016.7.1.~3)		
Effects of a health promotion program utilizing school forests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schoolers (포스터 발표)	문효정(지역 박사과정)	
2nd Singapore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onference (2016.9.29.~30)		
Effects of active video game in school on physical activity and cardiovascular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포스터 발표)	한수연, 여지영, 황지혜, 김초희 (아동 박사과정)	

동창회 소식 01

2016년도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16년 4월 12일(화)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동문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을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양광희 동창회장의 개회사와 김성재 학장의 축사에 이어 동창회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신 김남련(56졸) 동문, 임영숙(70졸) 동문, 이기주(70졸) 동문이 참석하여 2016년 제 1학기 장학생 11명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동창회장상 수여와 신입회원 환영식이 진행되었으며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동창회 사업과 교육연구재단 사업 보고가 있었으며, 예·결산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건심의로 동창회 정관에 포 상위원회규정 삽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부 동창의 날 행사에서는 주혜주(77졸) 동문의 흥겨운 사회로 동문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있었다. 김선희(83졸) 동문과 윤계숙(77졸) 동문의 피아노트리오와 75년 졸업동문의 중창과 김혜성(71졸) 동문의 오카리나연주 그리고 최재현(75졸) 동문의 화려한 홀라춤으로 멋지게 마무리 되었다.



동창회 소식 02

경복궁 고궁나들이

2016년 4월 28일(목) 오후 2시 동창회 문화행사로 경복궁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경복궁 고궁 나들이가 있었다. 이날은 특별히 파독 50주년을 기념해 모국을 방문한 팀과 함께 해설을 듣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고종의 서가였던 집옥재를 시민에게 도서관과 카페로 개방한 첫날이기도 했다. 참석한 동문들은 도서관의 서가를 둘러보고 고궁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경회루를 앞마당으로 하여 따뜻한 봄볕과 함께한 행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좋은 시간이었다.





동창회 소식 03

2016년도 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

2016년 7월 13일(수) 오후 4시 30분 간호대학 본관 102호 강의실에서 동창회 이사, 기대표, 지부대표, 단체대표 등 40여명의 동문이 모여 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선후배, 지역 간의 소통과 교류를 이어 가고자 마련한 행사로 서은영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양광희 동창회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김성재 학장의 축사에 이어 한혜정 동문(87졸, 서울대학교병원 수간호사)의 '웃음치료를 대하여' 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율동과 노래 속에서 강의를 듣는 동안 맘껏 웃으면서 스스로 치료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각 대표자들의 소개와 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저녁식사를 하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동창회 소식 04

2016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내역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2016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740만원을 모교 학부생 6명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5명(총 11명)에게 지급하였다.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학년	성명	금액
간호대동창회	박사	한슬기	100만원
간호대동창회(이윤경69졸)	박사	이진선	60만원
간호대동창회(김기주70졸)	박사	정예슬	50만원
간호대동창회(최애옥)	석사	박슬기	100만원
간호대동창회(김현희63졸)	석사	황민화	50만원
간호대동창회(오세영70졸)	1	이윤하	50만원
간호대동창회(강신자63졸)	2	이아라	60만원
간호대동창회(57년졸업)	3	홍다혜	60만원
간호대동창회(이송희)	4	홍정민	100만원
간호대동창회(이애주69졸)	4	박수비	60만원
간호대동창회(임영숙70졸)	4	이현주	50만원

동창회 소식 05

2016년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

2016년 10월 6일(목)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문들은 관악 캠퍼스 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하

고, 서울대 박물관을 비롯한 캠퍼스 내 주요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간호대학에서 준비한 창작 뮤지컬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풍성한 서울대 간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6년 3월 1일~2016년 8월 31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학 86년 졸업동기회	강자현	김수호 박경희(1974)	김영아(1988)
박달이(1978)	유기정(1976)	윤주영(2002)	이남주
이명선(1975)	이은옥(1963)	전문간호사과정 졸업생일동	정현명(1992)
조동란(1970)	조성현(1993)	채선미	최희승
최희정(1988)	탁성희(1990)	황보영(1996)	
교직원			
허현희			
기타			
전재일		한국학술정보(주)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02-740-8802

-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880-8004)